

+ WEEK 03

시간의 향기와 공간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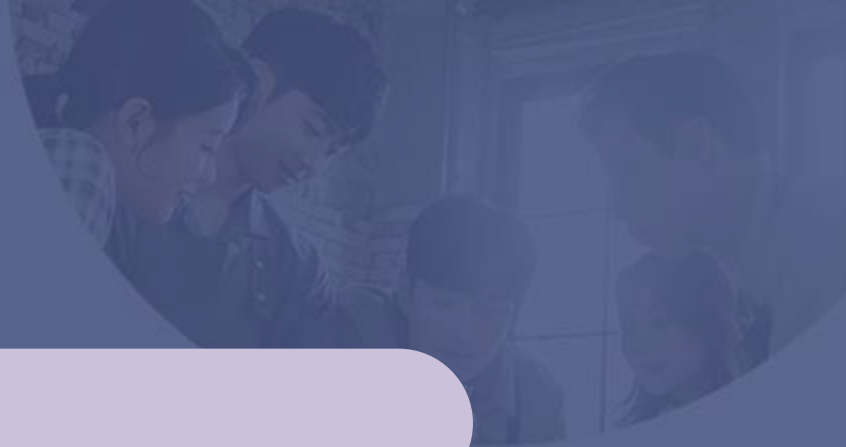
학습목표

- I. 끝없는 변화의 흐름으로 시간을 이해하며 지금 여기를 사는 이유와 기술을 배운다
- II. 현대의 가속화되는 시간에서 시간의 향기를 불러온다
- III. 공간과 장소의 차이를 알고 '이야기'가 있는 장소의 의미를 배운다

학습목차

- I. 네 삶을 사랑하라
- II. 시간의 향기
- III. 이야기가 있는 공간





I. 네 삶을 사랑하라

1. 시간에게 시간을
2. 순간을 살아가는 지혜

1. 시간에게 시간을

1) 계획하는 시간1

이탈리아에는 '시간에게 시간을 주라' 라는 속담이 있다고 한다...(중략)...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더 멀리, 더 빨리 움직이기 위해 이전보다 더 바빠졌고, 스마트폰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점령해버린 것을 보면 그렇다.

오늘날 사람들의 삶은 지나치게 바쁘다. 끊임없이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 일을 계획하고 오감을 동원해서 자극을 입력한다. 우연한 것들에 몸과 마음을 맡기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되었다...(중략)... **낮이 활동을 위한 시간** 이라면 **밤은 정리하고 소화하고 침잠하는 시간이다**. 소화할 틈도 없이 음식을 계속 먹기만 하면 배탈이 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기지만 정신도 탈이 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한다.

1. 시간에게 시간을

1) 계획하는 시간2

사려 깊고 현명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하다. 숙려하고 침잠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말은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단순한 감정을 보여주는 단문 일색이고, 그 감정의 강도를 나타내기 위한 욕설이 일상어가 되어 간다.

정류장에 미리 나가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인가. 예고 없이 지나치는 차량들 속의 풍경을 구경하는 일도 만만찮게 흥미롭다

출처:: 한겨레신문. 2015. 1월 27일. 김계수 농부.<순천광장신문> 발행인

1. 시간에게 시간을

2) 절약한 시간



<https://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MultiPopup.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32917245&popupMode=memberReviewDetail>

어린왕자는 목이 마를 때 먹으면 당장에 갈증이 풀리는 효과 좋은 약을 파는 상인을 만납니다. 이 약을 마시면 물을 마시러 다니는 시간이 일 주일에 53분이나 절약됩니다. 절약되는 53분을 무엇에 쓰냐고 어린왕자가 묻자 상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그 시간에 마음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왕자는 다른 생각입니다. 어린왕자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한다고 했나요?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1. 시간에게 시간을

3) 시간은 돈이다



이미지출처1-<http://www.abcoffice.co.kr/shop/reviewview.html?branduid=100879&date=>

이미지출처2-<https://www.ipn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215>

1. 시간에게 시간을

4) 시계 없는 삶

시간 의식을 가진 인간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불행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지은이는 "과거에 대한 후회는 과거를 고착화하지만, 반대로 과거에서 교훈을 발견하면 과거의 의미가 변한다. 인간은 타임머신이 없이도 과거를 바꿀 수 있다"고 지적 ...

미래로 눈을 돌려, 우리의 실천 방식을 살핀다. 우리는 몸속에 체화된 사회적 규칙이나 질서인 '아비투스'(지은이는 이를 '사회적 습관'이라 번역했다)에 따라 미래에 대처한다. 요컨대 미래에 대한 꿈조차 사회적 습관으로 길들여진 것이다...

'시계 없는 삶'을 제시한다. 이는 "과거의 족쇄를 풀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삶"이다. 그리고 "숫자로 환원될 수 없는 질적 차이와 고유함을 발견하는 삶"이다

출처 : 한겨레신문,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시간적 인간> - 시계 없는 삶을 위한 인문학. 이원 지음/지식의날개.에 대한 서평)

1. 시간에게 시간을

5) 체험의 시간

“로빈슨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무인도에 표류한 뒤에 자신이 시간을 지각하지 못하고 지냈다는 점입니다. 오늘이 언제인지, 그리고 내일이 언제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는 시간을 찾아야만 자신을 되찾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찾고자 한 시간이 ‘객관적 시간’이었다는 점입니다. 베르그송이 말한 ‘체험된 시간’이 아니라 ‘시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무인도에서 로빈슨에게는
과연 시간이 없었을까요?**

2. 순간을 살아가는 지혜

1) 순간의 연속

동일한 것의 영원회귀란 과거에 발생하였고, 지금 발생하고 있으며, 미래에 발생할 모든 것이 이미 발생하였고 다시 발생할 것이라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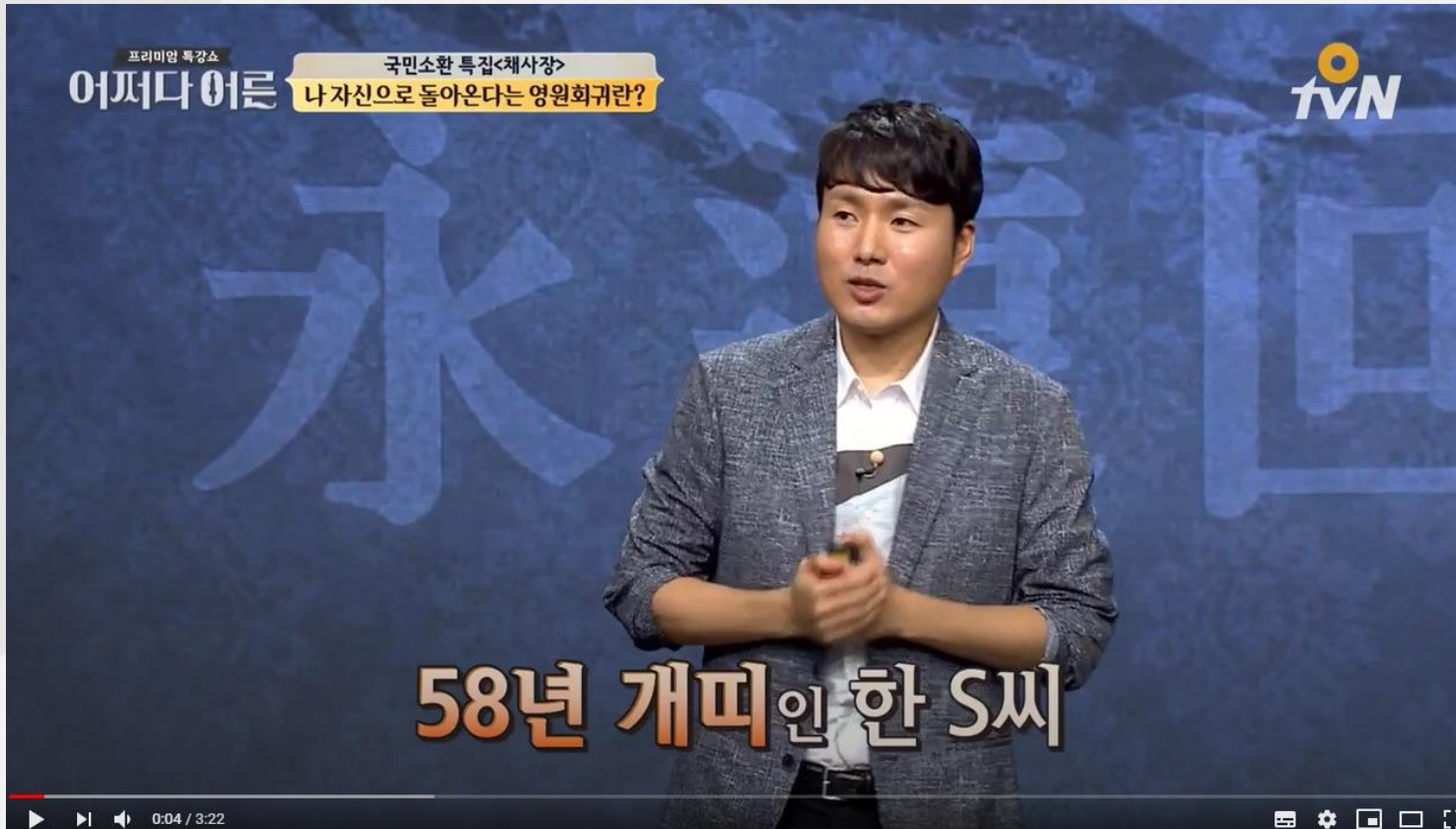
영원회귀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긍정_인간 자신이 직면하는 것은 오직 순간이기에, 그것을 긍정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영위한다

-시간은 엄밀한 의미에서 무한한 순간의 연속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시간을 과거와 현재,미래로 구분하는가?

출처_정낙림. "자기를 긍정하는 디오니소스적인 인간" .<인간본성에 관한 철학 이야기>.아카넷. 2007

2. 순간을 살아가는 지혜

2) 영원회귀



https://www.youtube.com/watch?v=o77jaewtnho&ab_channel=OtvN

2. 순간을 살아가는 지혜

3) 네 삶을 사랑하라

- 니체의 영원회귀 (동일한 것의 영원한 반복)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을 지금 이 곳의 삶을 넘어서 곳에서 찾아서는 안된다는 뜻
- 그렇다면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 내가 택한 방식은 운명애이다. 앞을 향해서도 뒤를 향해서도 영원에 걸쳐서 하나도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 일, 필연적으로 닥쳐 오는 일을 은폐하지도 않고 견딜 뿐 아니라 사랑하는 일”

출처_정낙림. “자기를 긍정하는 디오니소스적인 인간”. <인간본성에 관한 철학 이야기>. 아카넷. 2007

2. 순간을 살아가는 지혜

4) 건너가는 자

“인간은 짐승과 초인 사이에 놓인 밧줄이다. 심연 위에 걸쳐진 밧줄이다. 저쪽으로 건너가는 것도 위험하고 줄 가운데 있는 것도 위험하며 뒤돌아 보는 것도 벌벌 떨고 있는 것도 멈춰서는 것도 위험하다. 인간의 위대함은 그가 ()일 뿐 ()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인간이 사랑스러울 수 있는 것은 그가 건너가는 존재이며 몰락하는 존재라는 데 있다.

나는 사랑한다. 몰락하는 자로서 살 뿐 그 밖의 삶은 모르는 자를.
왜냐면 그는 건너가는 자이기 때문이다”

2. 순간을 살아가는 지혜

5) 나는 있노라

그대가 실수와 후회로 얼룩진 과거 속에 살 때
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들리라
나는 거기에 없노라
내 이름은 '나는 있었노라'가 아니리라

그대가 문제와 두려움으로 얼룩진 미래 속에 살 때
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들리라
나는 거기에 없노라
내 이름은 '나는 있으리라'가 아니리라

그대가 이 순간을 살 때
내 음성을 듣기가 힘들지 않으리
내 이름은 '나는 있노라' 이니라 -작자 미상의 시-

2. 순간을 살아가는 지혜

6)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 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 때 그 사람이
그 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병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아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

출처-정현종.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 세계사. 1989



Ⅱ. 시간의 향기

1. 세계는 끝없는 변화의 흐름
2. 기억과 시간
3. 시간의 향기를 불러내기

1. 세계는 끝없는 변화의 흐름

1) 생성의 존재로(니체)

- * 현대철학의 출발점 니체
- * 사유의 전복-존재에서 생성으로(from being to becoming)
 - 서구문명의 사상적 경향이 '생성(生成, werden, becoming)'을 부정(생성하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고 봄)
 - 오로지 생성밖에 없다
- * 생성의 부정은
 - 1)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어떤 시간을 초월한 세계, 차원으로 넘어감.
 - 2)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이 현실을 폄하하고, 저 세상에 대한 갈망
- * 이 세계를 넘어선 세계가 있다면 그것은 시간이 없는 세계
- * 베르그송_지속

1. 세계는 끝없는 변화의 흐름

2) 지속의 철학(베르그송)1

- * 모든 분석은 어떤 형태로든 시간을 왜곡. 변화, 운동, 시간은 근본적으로 분할 가능하지 않음
- * 분할할 경우 반드시 그 본성을 해침. 분할하는 순간 그 존재를 어떤 식으로든 훼손시킴
- * 모든 동일성은 어떤 형태로든 시간에 왜곡을 가함.

베르그송이 생각하는 세계는 끝없는 변화, 흐름, 시간이 핵심

- * 진짜 리얼리티는 아무리 분석해도 완전히 그 분석에 들어오지 않는 이 세계의 흐름.

1. 세계는 끝없는 변화의 흐름

2) 지속의 철학(베르그송)2

- * 우주의 창조적 진화의 원동력인 '생명의 약동'이 우리 가슴 속에서 숨쉬고 있음 → 사랑의 약동
- * 윤리나 도덕에서 필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 속에서 맥놀이치는 사랑의 약동을 실제 직관하고, 그 직관을 통해 **우주와 인간의 삶을 사랑하는 것**
- * 윤리의 척경은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살아 있는 생명의 약동을 '느껴야 한다'고 함.
- *자기의 이론과 모순되지 않게 산 사람(유대인)

출처:철학사 입문코스 5: 현대철학의 흐름 중 3강. 베르그송의 사유체계

2. 기억과 시간

1) 기억은 동일성

- * 생명은 차이를 낳은 힘인 동시에 기억이기도 함.
만약 기억이 없으면 ()도 없다.
- * 쪽 이어지는 운동성이 있어야 시간이 있음.
- * 베르그송의 기억은 그냥 인간의 기억만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기억(생명체의 ()도 일종의 기억장치)
- * 기억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동일성
- * 현대 철학자들은 대부분 메모리를 비판
- * 메모리의 부정성_기억에 집착하게 함. 기억이 자꾸 새로움
보다는 옛날 것을 끝없이 이어가려는 동일성이 있음

2. 기억과 시간

2) 자전적 기억

자전적 기억(autobiographical memory)이 자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개인적 경험에 관한 일화적 기억을 말한다. 이렇듯 **시간과 장소라는 맥락에 의존하는 기억이 자전적 기억이다.**

자전적 기억은 실제 일어났던 일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을까?

우리 기억은 진실을 완벽하게 반영하지도 않으며, 그래야 할 이유도 없다 (비참했던 일을 평생 기억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이미 촬영된 필름을 아름답게 편집할 수 있다. 우울한 장면을 뽀샵 처리해서 밝게 만들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에 따라서 영화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2. 기억과 시간

3)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1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다

하늘이 젖는다
어두운 거리에 찬 빗방울이 떨어진다
무리를 지으며
따라오는 비는 내게서 먼 것 같아
이미 그친 것 같아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
바람에 흩어져 버린
허무한 내 소원들은 애타게 사라져간다

*2011년 10월, 대중음악 전문가
10명+문인 9명이 뽑은 2000년
~2011년 9월까지 발표된 가요
중 가장 가사가 아름다운 노래 1
위로 선정

*이소라의 6집 앨범 "눈썹달"
에 수록된 노래.작곡은 The
Story의 이승환(작곡가). 작사
는 이소라 본인

2. 기억과 시간

3)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2

바람이 분다
시린 한기 속에 지난 시간을 되돌린다
여름 끝에 선
너의 뒷모습이 차가웠던 것 같아
다 알 것 같아

내게는 소중한 것만 못 이루던 날들이
너에겐 지금과 다르지 않았다
사랑은 비극이어라 그대는 내가 아니다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나의 이별은
잘 가라는 인사도 없이 치러진다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
내게는 천금같았던 추억이 담겨져 있던
머리위로 바람이 분다
눈물이 흐른다

가사를 보면 알겠지만, 원하지 않은 이별을 맞아야만 했던 상황의 심리를 섬세하게 다루어 낸다.

이별로 인하여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만 같고, 나만이 힘들어하는 것만 같으며 나에게는 상대방과의 추억이 아름답고 “천금 같았던” 것으로 기억되지만 상대방에게는 그렇지 않고 “추억이 서로에게 다르게 적히는”, 상대방과 나는 그렇게나 다른

즉, “그대는 내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을 표현한다. 출처-나무위키(2023)

2. 기억과 시간

4) 나는 내 인생의 영화감독1

- *기억이 없으면 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촬영하는 영화감독입니다
 - 우리가 한 컷 한 컷 찍는 scene(기억)이 우리 영화의 내용(인생 또는 자아)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온 날을 영화로 찍어봅시다>

-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필름입니까?
- *어떻게 편집하실래요?
- *제목은 어떻게 붙일까요?

2. 기억과 시간

4) 나는 내 인생의 영화감독2

영화 제목	감독
필름 1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필름 2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div style="border: 2px solid green;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과제4 MY STORY 4컷 </div>	
<div style="text-align: right;">1</div>	<div style="text-align: right;">2</div>
<div style="text-align: right;">3</div>	<div style="text-align: right;">4</div>

My Story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아래 칸에 써봅시다(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볼 때 그 일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다 작성한 후에는 여러분이 영화감독이라 생각하고 당신이 만든 영화의 제목을 붙여 보세요.

2. 기억과 시간

4) 나는 내 인생의 영화감독3



주식회사 엘케이엔터테인먼트에서 운영하는 [즉석사진관 체인점](#). 2017년에 대구 동성로에 첫 포토 부스를 열었다. 이후 주요 상권이나 관광지에 체인점을 내면서 인기를 끌게 되었다. [2020년대 이후로는 인생네컷이라는 말이 즉석사진 자체를 칭하는 말이 됐을 정도.](#)

인터뷰이가 방에 정리한 셀프 포토_출처:바이브랜드

2. 기억과 시간

4) 나는 내 인생의 영화감독4

1. 무대에서의 설렘 / 언제:13살

평소 춤을 추는 것을 좋아했지만 단순한 취미에서만 그쳤지. 누군가에게 무대 위의 저의 모습을 보여줄 기회는 한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로 동아리 친구들과 경연대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 무대에서만 표현되어지는 저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였고, 그에 이어서 무대에서 공연을 할 때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두근거림을 느꼈으며, 그 기분을 계속 간직한 채 쪽 이어나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저는 무대에 대한 애착심이 깊어졌으며 춤에 대한 열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2. 기억과 시간

4) 나는 내 인생의 영화감독5

2. 육상대회의 짜릿함 / 언제:17살

체육선생님의 권유로 육상대회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운동은 취미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좋은 기회, 경험을 쌓고 가자 라는 생각으로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준비과정에서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점점 생겨나,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치로 준비를 하여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첫 출전이라 긴장도 많이 되고 학교 대표로 나가는 거라 부담도 많이 되었지만 주변의 응원과 저의 승부욕이 좋은 운을 따르게 해주어 1등을 했습니다. 담당 코치님도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라고 많이 놀라셨습니다. 그때 저는 결과도 결과였지만 제 스스로 간절하게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이뤄낸 것에 엄청난 성취감을 느꼈고 그 후에도 이런 마음을 갖고 어떤 일을 할 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기억과 시간

4) 나는 내 인생의 영화감독6

3. 갑작스러운 뉴스 출현 / 언제:21

자격증 시험이 있어서 시험을 본 후 밖에 나왔을 때 우연히 YTN 에서 인터뷰를 요청해서 우연한 기회로 뉴스에 출현을 하게 되었다. 방송부를 했을 때 직접 누군가를 찍어본 경험은 있었지만 내가 찍히는 건 처음이라 많이 미숙하고 어색했지만 TV에 출현한 일은 정말 쉽지 않은 경험이었기에 아직도 그 긴장감은 잊을 수가 없었다.

4. 즐거운 일본여행 / 언제:19

대학 입학 전 일본 오사카로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다. 수능이 끝난 직후라 어떤 근심도 없이 정말 힐링이 되었던 시간이었다. 여행을 하면서 그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나 여러 생각들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친구들과 깊은 추억과 우정을 나누게 된 계기라 정말 행복했습니다.

2. 기억과 시간

4) 나는 내 인생의 영화감독7

5. 에버랜드 알바 / 언제: 20살

여름방학을 걸쳐 10월까지 에버랜드 알바를 한 적이 있다. 놀이기구 관련해서 알바를 했었는데 서비스직일 뿐 더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힘든 점도 많았지만 입사 동기들과 그 덕에 더욱 정도 많이 쌓았고 인내하는 법을 확실하게 배운 시간이어서 유익했다.

6. 뜻밖의 연락 / 언제: 21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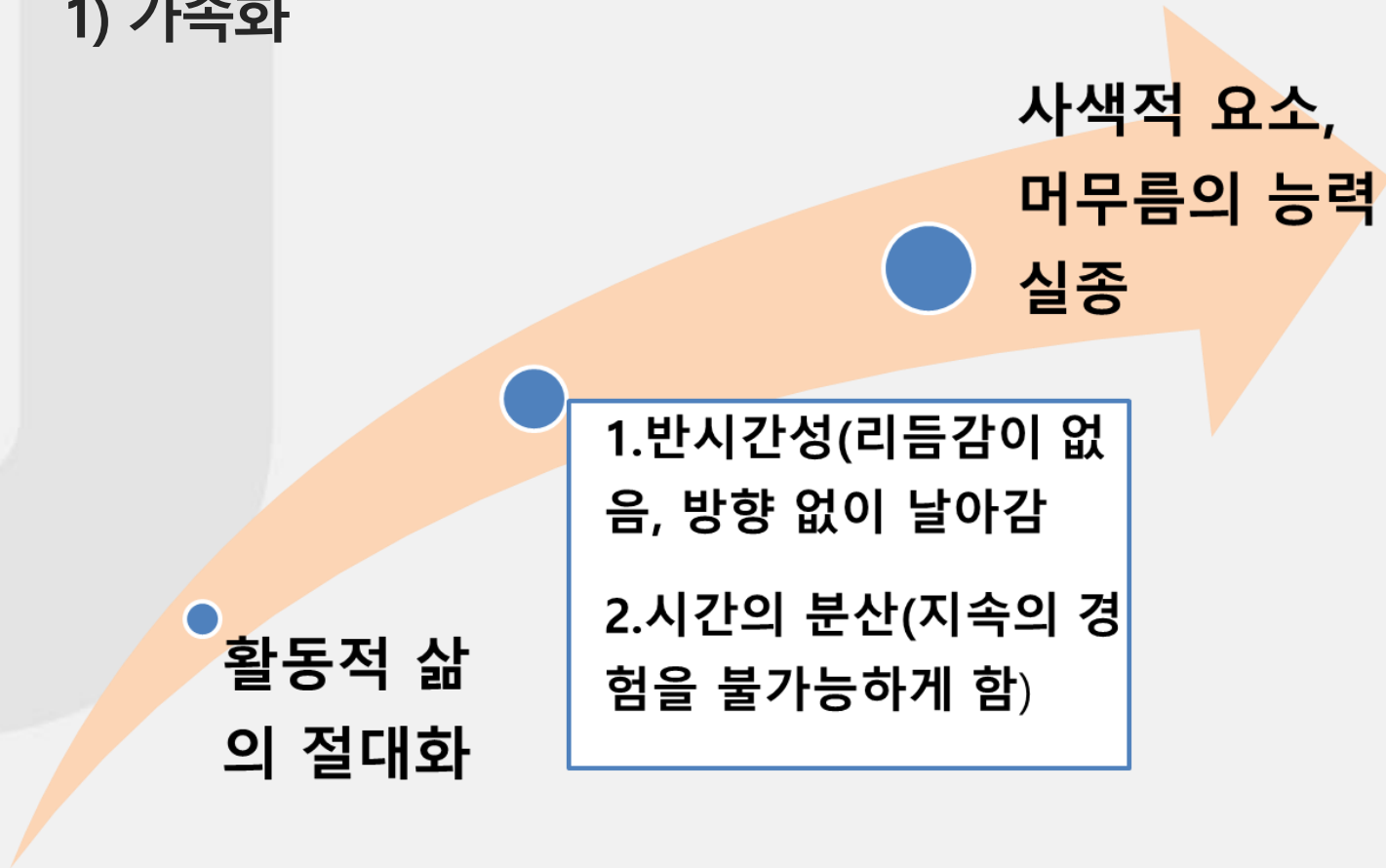
내가 정말 보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사정상 연락을 하지 못하게 되어 정말 아쉬워 하고 있는 찰나에 그 친구에게 다시 연락이 오게 되어서 정말 행복했고 믿겨지지 않았다.

*영화제목: **알 수 없음** 영화감독:***

이유: (경험은 고의적으로 만들어 지지 않으며 , 그 결과 또한 알 수 없기 때문에)

3. 시간의 향기를 불러내기

1) 가속화



3. 시간의 향기를 불러내기

2) 마들렌의 향과 맛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히 독자적인 전대미문의 행복감, 그 근거가 무엇인지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그런 행복감이 내 온몸에 흘러 퍼졌다. 단번에 나는 삶의 굴곡에 무관심해졌고, 삶의 재앙도 그저 대수롭지 않은 불운이었으며, 삶의 짧음도 단순히 우리 감각의 기만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하여 내 안의 무엇인가가, 보통은 사랑만이 이를 수 있는 무언가가 일어났고, 이와 동시에 나는 어떤 진미의 물질로 채워진 듯이 느꼈다. 아니, 이 물질이 내 속에 있다기 보다는 나 자신이 그 물질이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평범하다거나, 공연한 존재라거나, 죽어 없어질 몸이라고 느끼지 않게 되었다.

시간의 연금술에 의해 감각과 기억이 결합하여 현재에서도 과거에서도 벗어나 있는 시간의 수정이 만들어진다

3. 시간의 향기를 불러내기

3) 시간의 지속성

향기들로 채워진 향아리는

1)그 속에 아무것도 흐르지 않고 아무것도 시간의 풍화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의 장소이다.

2)하지만 그 향아리를 채우는 것은 ()적인 초월성이 아니다. 좋은 향기를 지닌 “천상의 음식”은 시간적인 성분으로 이루어져있다.

그 음식의 향기는 무시간적인 영원성의 향기가 아니다. 지속성을 위한 프루스트의 전략은 시간을 향기롭게 만드는 것

3. 시간의 향기를 불러내기

4) 머물러 바라봄1



2015년 4월. 처음 진달래를 바라보기 시작했을 땐 여리고 투명한 꽃잎만 보였다.

2016년, 2017년 매년 4월마다 진달래를 보다 보니 줄기, 뿌리, 잎, 뒷모습, 그리고 진달래의 마음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인왕산 진달래, 2015~2017년, 펜&수채, 25x10cm, 24.5x33.5cm 등.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91769.html

3. 시간의 향기를 불러내기

4) 머물러 바라봄2

고정관념을 그리고 있었다는 걸 그날 처음 발견했다. 그 후 주변의 사물들을 뚫어지게 관찰하는 습관이 생겼다. 피곤한 모습으로만 기억되던 동료의 긴 속눈썹, 안 감아 냄새나는 머리칼 뒤에 숨겨졌던 잘생긴 귀, 비뿔비뿔 솟아난 덧니가 만들어내는 명암 등을 발견해 그려낼 때마다, 조금씩 친구와 더 닮아가는 게 재미있고, 신기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았던 건, 그 '그윽한 바라봄'이 가져다주는 또다른 차원의 행복이었다. 바쁜 일상을 멈추고, 동료의 속눈썹과 콧구멍과 뒷목선과 귓불을 유심히 바라보는 그 짧은 1시간 동안, 나는 그 친구가 옆 책상에 앉아 있는 직장인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겪어내고 있는 쓸쓸함도, 등 뒤에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도 느껴보는 색다른 경험을 하곤 했다.

3. 시간의 향기를 불러내기

5) 은유1

시간이 아무런 연관성 없는 점적인 현재로 붕괴하려 하는 상황 앞에서 **프루스트는 다수의 관계와 유사성으로 이루어진 시간의 직물로 대항한다.** 모든 사물이 서로 얽혀있다는 것, 극히 사소한 사물도 세계 전체와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려면 그저 존재의 안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조급성의 시대에는 지각을 심화할 만한 시간이 없다...**진리 역시 관계적인 사건이다...사물들이 사귀기 시작할 때, 진리는 일어나는 것이다.** "진리는 작가가 상이한 두 사물을 취하여 그들 사이의 관계를 수립하고... 아름다운 문체라는 필수불가결한 고리 속에 묶어두는 순간에 시작된다..."

3. 시간의 향기를 불러내기

5) 은유2

...또는 작가가, 마치 삶이 그렇게 하듯이, 두 감각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의 특질을 비교하고 이들이 단순한 시간의 우발성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를 다른 하나의 은유 속에서 통합함으로써...그 정수를 세상 밖으로 끌어낼 때, 진리는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유사관계, 친교관계, 근친관계를 통해 비로소 사물들은 진리가 된다...

()를 만들어 내는 것도 사물들 사이의 연결선, 교통로를 내서 풍부한 관계망을 짜는 행위라는 점에서 진리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은유는 존재의 원자화 경향에 항거한다.



Ⅲ. 이야기가 있는 공간

1. 공간과 장소
2. 이야기가 있는 공간

1. 공간과 장소

1) 공간과 장소의 차이

앙리 르페브르라는 학자는
'공간(space)'과 '장소(place)'의 차이에 대해,
공간은 물리적 개념이고,
장소는 그곳에 사람들의 관계가 누적적으로
개입하는 곳이라고 정의를 내린 적이 있다.
즉, 공간이 물리적 속성을 갖고 있다면
장소라는 개념은 삶, 문화, 기억, 생태계, 공동
체 등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공간과 장소

2) 공간의 지배력

공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 배경만은 아님. 공간에는 인간을 길들여서 그에 맞는 인간형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음

고산지대, 사막의 오아시스 근처에 사는 인간, 오지에 사는 인간, 태평양의 이름 모를 섬에 사는 인간, 대도시에서 사는 인간

공간의 지배력은 공간을 분할하여 만든 건축물과 같은 인위적인 공간에도 미침

1. 공간과 장소

3) 같은 장소, 다른 의미



“공간자체가 누군가의 소유는 아닐 것이다 . 공간 속의 장소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담긴 어떤 사물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같은 장소라 해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장소가 어떤 이에게는 전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곳이 되기도 한다.

공간은 모두가 공유하고 있지만 장소는 개인적이고 변화 가능하다 .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2007, 9, 6 [한국 도시 디자인 탐사](1)아파트공화국, 도시는 오늘도 성형수술중경향신문

1. 공간과 장소

4) 장소는 기억을 만든다

공간 속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담겨지는 것은, 장소로 변화하고 장소는 개인의 관념의 대상이 된다

같은 공간 다른 시간 다른 장소. **공간은 시간이 되고 시간은 장소를 만들고 장소는 기억을 만든다.**

기억은 많은 것을 담고 있지만 잊혀 진다. 잊혀지는 것은 공간과 시간 속으로 흩어지고 같은 장소는 다른 의미가 된다.

반복 되지 않는 시간은 장소성 속에 들어있는 개인이 된다.

과제5/~에서

장소가 기억이 된 그 곳의 이야기를 풀어봅시다

2. 이야기가 있는 공간

1) 모모

모(mo)_라틴어에서 유래, 이탈리아어로 '지금'이라는 뜻
로마 지역 사람들이 회화에서 자주 쓰는 '모'_ '흐르는 시간에서 떼
어낸 현재'. 모모(momo)_지금이라는 의미의 강조적 반복

모모는 매우 충실하게 현재를 삼
동네 사람들이 전하는 현재의 삶에 관한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는 게 모모의 미덕.
아낌없이 현재를 살기 때문에, 과거의 어느 때인가 태어나서 미래의
언제인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있는 존재"인 것.
흘러가는 시간으로부터 해방된 모모의 현재성이 있음.

2. 이야기가 있는 공간

2) 시간 이야기가 전하는 공간의 의미



<모모>는 시간 도둑들에게 속아 시간에 쫓기고 시간을 불필요하게 아낌으로써, 공간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다.

모모가 호라박사에게서 받은 '시간의 꽃'으로 회색 도당들의 시간창고를 파괴함으로써 시간은 되돌아오고 정지되었던 공간은 다시 살아난다.

모모가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이 진정으로 되찾은 건, 시간이 아니라 공간인 것이다. 삶의 의미로 충만한 공간 말이다

-<김용석의 고전으로 철학하기>, 한겨레, 2006, 3,20-

2. 이야기가 있는 공간

3) 현재는 공간적 개념

- * 베포는 공간을 관조하면서 비질을 함으로써 찬란한 삶의 의미들을 사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
- * 하지만 회색 신사에게 시간을 담보 잡힌 뒤로는 시간에 쫓겨 한 치 앞에 놓인 공간에도 눈길 한 번 주지 못한 채 서둘러 비질을 계속하는 일상을 보내야 한다

**‘현재’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공간적 개념이다**

핵심정리

1. 오늘 우리가 배운 것

- (1) 끝없는 변화의 흐름으로 시간을 이해하며 지금 여기를 사는 이유와 기술을 배운다
- (2) 현대의 가속화되는 시간에서 시간의 향기를 불러온다
- (3) 공간과 장소의 차이를 알고 '이야기'가 있는 장소의 의미를 배운다

2. 참고문헌

- (1) 강신주 <상처받지 않을 권리>. 프로네시스. 2009
- (2) 정낙림 "자기를 긍정하는 디오니소스적인 인간"
<인간본성에 관한 철학 이야기> 아카넷. 2007
- (3) 이정우. 철학사 입문코스 5. 현대철학의 흐름 중
3강(베르그송의 사유체계)



핵심정리

- (4) 한병철 <시간의 향기> 문학과지성사. 2013
- (5) 홍성욱 <네트워크혁명 그 열림과 닫힘> 들녘. 2002

3. 기사

- (1) 한겨레신문. 2015년 1월 27일. 김계수 농부<순천광장신문> 발행인
- (2) 한겨레신문,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시간적 인간> 시계 없는 삶을 위한 인문학. 이원 지음
지식의날개.에 대한 서평)

4. 동영상

- (1) 어쩌다 어른
(https://www.youtube.com/watch?v=o77jaewtnho&ab_channel=OtvN)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이번 시간

03. 시간의 향기와 공간 이야기

다음 시간

04. 습관, 나는 습관이다